

리멤버 타이탄

1. 영화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소감

중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리멤버 타이탄이라는 영화를 틀어줘서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지난 수업시간에 본 게 두 번인데, 내가 성장해서인지 좀 더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감상해서인지 내게 와 닿는 느낌이 조금 달랐다.

옛날의 내 기억으로는 리멤버 타이탄은 감동적이고 재밌기도 하지만 약간은 일차원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었다. 그 당시의 나는 코치들 간의 갈등은 인식하지 못했고 단순히 인종이 다른 선수들의 갈등만 알았으며, 주변상황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본 리멤버 타이탄은 여전히 재밌고 감동적이긴 했지만 복잡했고, 쉽게 생각하고 다뤄질만한 영화는 아니었다. 커서 다시 보니까 코치들간의 갈등도 보였고, 무조건 절대 선이라고 생각했었던 허만 분 감독도 때로는 판단미스도하고, 승부에 집착하여 눈이 멀기도 하는 그저 사람이었다. 어렸을 때 나는 흑인을 억압하는 백인 어른들이 나쁘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역차별이었고 나의 성급한 일반화였다.

나는 이 영화가 특별한 절대 선이라던가, 뭐 영웅이 아닌 다들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에 더욱 공감이 간다. 사람인 이상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때로는 틀린 판단도 하며, 다투기도 하고 화해도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보여 지기에 우리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 같다.

예전에는 선수들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았으나 다시 볼 때는 감독과 코치, 그리고 미국의 상황과 미국인들의 편견이 보였다. 요스트와 허만이 서로를 인정하고 특히, 마지막 경기에서 반격의 일격을 준비하는 장면이 감동적이었고, 그간의 갈등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다.

살다보면 나랑 맞지 않는 사람, 주는 거 없이 싫은 사람, 아니꼬운 사람, 가치관 같은 것이 너무 다른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 반대로 나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등 나와 갈등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나 역시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해보았고, 누군가의 뿌리 없는 미움을 받아보기도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서로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은 서로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일찍이 깨달았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 자체로 감정소모가 너무 커서 내 자신이 지레 지치게 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역시 깨달았다. 아무렇지 않게 받아드리면 된다는 말이다. 그 대상이 누가 되었던, 그 역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누군가의 자식이자, 연인이고, 친구이며, 부모라는 것을 말이다. 그 역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화도내고 울기도하고 죽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더 이상 그 대상을 마냥 미워할 수 없게 되는 것 같다. 싫어하는데 감정소모를 하기 보단 그 대상과 떨어져 있으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영화를 보면 서로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허만이나 요스트 둘 다 사랑스러운 딸을 가진, 아버지이자 선수들을 아끼며, 직업의식이 투철한 인간들이었다. 결론적으로 나는 불신과 증오 미움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감정소모하고 시간낭비를 하지 않으며, 서로 인정

하고 힘을 합칠 때, 더 좋은 결과(13승 연패의 주 우승)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제목이 굉장히 멋진 영화였다. 리멤버 타이탄. 기억하라 타이탄을.. 그리고 그 말은 내귀에 와서 이렇게 해석되어 들린다. 그때의 타이탄을 기억하라. 타이탄의 화합을, 그 화합이 만들어낸 강함을 이라고 말이다.

2. 탐구사항: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답하십시오

1) 영화 속에서 감독과 코치, 선수들 간의 인종적 갈등과 화합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시대적 배경에 따라 사회적으로 흑인과 백인 피부색깔이 다르다는 고정관념의 뿌리로 백인이 우월하다는 인식들이 되어 있는 때, 버지니아 주의 T.C. 윌리엄스 고교의 타이탄의 감독으로 허만 분이 위임받는다. 허만 분은 2주간 캠프훈련으로 선수들 간의 화합의 장을 열고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기르려고 한다. 훈련과정에서 선수들에게 게티스버그 전투 공동묘지를 보여주며, 이들은 서로를 미워하다가 여기에 묻혔다고 너희는 서로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한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알게 하는 등 캠프과정에서 서로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하고 단합력을 키우는 등 캠프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교내 학교에서나 사회적, 그리고 주민들에서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 타이탄의 선수들은 캠프 후에 다시 조금 뼈격거리려다 스스로 각성하여 다시금 단결심을 길러, 시합에서 '타이탄'이라는 자신들에 대해 노래와 동작으로 시합 관중들 모두에게 표현을 하게 되면서 시합에서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 그리고는 교내 학교 학생들과 동네 주민들도 함께 타이탄 팀을 응원하여주고, 허만 감독에게도 아낌없는 격려와 축하를 해주면서 사회적으로도 확장하여 앞으로는 인종차별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견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2) 영화에서 나타나는 미국사회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어떠한가?

이 영화는 1970년대 버지니아 주를 배경으로 한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사회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참전'을 결정하였다. 이런 결정에 따라 전 미국의 대학가에서는 반전운동이 계속되었고, 베트남 전쟁과 인권문제에 대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또한 백인 따로, 흑인 따로 다니는 학교에서 흑인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베트남 전쟁에서 흑인들이 백인들보다 더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흑인 사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1971년 7월 그 해 여름 한 흑인소년이 상점 주인에게 살해당하자 도시 전체가 폭발 직전으로 치달은 상황에서부터 영화가 시작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 흑인교수가 멀리 떨어진 학교에 등교해야만 하는 아들을 백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미국 연방법원은 이런 불만들을 잠재우기 위하여 흑인 신학교수 다리우스 스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그 유명한 "스완 판결"을 이끌어 낸다. 이 스완 판결이 바로 리멤버 타이탄의 T.C 윌리엄스 고교를 흑백 통합고교로 만들었던 것이고, 데이 박사교수로부터 추천으로 리멤버 타이탄의 T.C 윌리엄스 고교를 흑백 통합고교로 만들기 위해 킹 목사와 함께 시위도 하고, KKK단에서도 당당하게 맞선 활동을 보인 허만 코치를 고교 감독으로 임명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

3) 감독과 코치, 선수와 학부모들에게 있어서 풋볼의 의미는 무엇인가?

풋볼은 허만 분 감독과 요스트 코치, 그리고 타이탄 선수들과 학부모, 나아가 지역주민 모두에게 매우 뜻 깊은 스포츠이다.

감독과 코치입장에서의 공식적인 부분에서는 풋볼이 자기 자신들의 직업으로서 자신을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자, 목표이고 열정을 쏟는 대상이며,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며 한편 성공함에 따라 명예역시 따라오고 생계수단이기도 한 인생의 전부라 볼 수 있다.

비공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스포츠의 입장으로써 흑인과 백인 통합된 단체운동으로써 더욱더 강력한 단결력과 하나라는 인식의 중요성으로 바라볼 수 있다.

선수입장에서 공식적인 부분에는 대학교를 가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겠고, 비공식적인 부분에서는 단결력과 하나,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지님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열정을 쏟고 팀원들과 협동심과 끈끈한 우정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백인과 흑인 선수의 2주간 캠프를 통해 단결된 모습을 보았을 때 스포츠라는 활동이 사교성을 자연스럽게 발달시킬뿐더러 서로간의 이해와 문화차이의 인정(mother joke) 등을 가능하게 하여 인종차별을 줄일 수 있게 하는 방면임을 위 영화를 통해 볼 수 있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격하게 부딪쳐서 하는 운동이므로 자식이 걱정되기도 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어 지역민들에게 축하받고 인정받을 때는 자식 자랑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지역민들에게 풋볼은 유희를 위한 스포츠이며, 통합과 단결력을 길러주고 아마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복싱경기를 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하루의 고단함을 풀었던 것과 같은 대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4) 허만 감독은 팀이 곤경에 처했을 때에도 경기의 승부에 집착하여 백인 수비코치인 요스트와 마찰을 겪게 된다. 허만 감독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며, 당신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백인 첫 통합 학교가 나오면서 맨 첫 장면에 감독으로 위임받은 것에 축하를 해준 흑인 사람들의 기대감을 상실시켜주고 싶지 않기 위해, 그리고 코치보다 책임이 막중한 감독의 자리에 있었고, 첫 흑인이 감독을 맡게 되어 지역과 학부모, 선수들 간의 반발도 많았기에 실적으로 보여줘야겠다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을 감독으로 부임한 학교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한 높은 실적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라고 보인다. 나중에는 단 한 번의 패인으로도 짚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처음에는 그러한 행동에 이해가 갔다. 다른 사람들이 허만 분에게 가하는 집에 돌을 던지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위와 흑인이라서 무시하는 과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또한 나 역시도 반발심과 오기가 생겨서 허만 분 감독이 승승장구 하였으면 하는 마음도 가졌으니 본인은 오죽했을까 싶다. 하지만 나중에 그 승리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져서 상대방의 수를 읽지 못하고 오히려 읽히고, 선수들을 지나치게 다그치는 장면에서는 허만 분도 사람이구나 싶었다. 그 역시 온전한 인간이거나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다고 느껴졌다. 그 역시 사람이었기에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스트코치의 직언으로 그는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깨닫고 내면을 성찰함으로써 요스트 코치와 다시 화합적으로 경기를 진행하였고, 좋은 결과를 냈다. 사람이기에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깨닫고 다른 이의 조언을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5) 본 영화는 외면적으로는 인종간의 갈등과 마찰을 다루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내면에 갖고 있는 타인에 대한 편견과 오만,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초월함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자기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본 영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허만 감독과 요스트 코치 간, 흑인과 백인 선수들 간의 갈등과 마찰, 그리고 화합을 통해 자기완성을 보여주는 영화로써 공통적인 관점으로 그 특징을 말하자면, 처음에 봤을 때 외적으로는 피부색깔을 보겠지만, 2주간의 캠프훈련 때 룸메이트 간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너무도 다른 취향과 개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단순히 피부 색깔만 다른 게 아닌, 성격과 취향도 다르지만 누구 하나가 손을 먼저 내밀고 이해하고 인정해준다면, 적어도 상대방을 알려는 작은 노력이라도 한다면, 게리와 줄리어스처럼 친 형제보다도 더 친하게, 끈끈하게 잘 지낼 수 있고 같이 해나가는데 있어서도 매우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리고 미식축구를 소재로 해서 그런지 선수들 간의 단결력, 끈끈한 정과 의리로서 사회생활과 인간의 도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영화는 굉장히 심오하게 자기완성의 의미에 대해 말하고 있다. 타이탄은 우주를 지배한 신보다도 강한 동물이었다. 선수들의 팀 이름은 타이탄이었다. 그리고 감독은 ‘운동장은 우주이다, 타이탄처럼 그 우주를 지배하라!’라고 선수들에게 말하였다. 모두들 타이탄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면서 말이다. 우주는 미움과 슬픔이 없다고 한다. 그저 포용하고 사랑하며 기뻐할 뿐이다. 우주를 지배하라는 말은 이것과도 연관이 되어있는 것 같다. 한의학에서 인간은 소우주라고 한다. 즉, 타인을, 나아가 스스로를 포용하고 사랑하면 내안의 편견과 오만이 사라지게 되고, 내 주변의 이웃을, 나아가 만인을 향한 인류애가 피어오른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다. 그게 모든 대상을 향한 사랑의 시작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자아발견과 자기완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6) 분 감독과 요스트코치에게 있어서 가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허만 분 감독에게 있어서 가정의 의미로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와 T.C윌리엄스 고교에서 최초로 흑인 감독으로 일하게 되면서부터 가족들에게 가는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서로 곁에 머물러 헤쳐 나갈 수 있는 버팀목과 용기, 자신감을 주는 가족들이자, 그들의 삶의 터전이다. 즉, 휴식처이자 안식처 또한 총을 들고 나가게 하는 지켜줘야 하는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요스트 코치는 너무 열심히 일만하였기에 아내는 떠났고, 딸 하나와 자신 이렇게 둘만 가족이고, 가정이다. 그에게 가정은 딸이 전부일 것이다. 따라서 가정은 그의 딸과 동의어일 것이고, 사랑과 연민 아내의 부재로 인해 이미 다쳐 지켜줘야 할 소중한 대상이며,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한다. 가장인 자신과, 사랑스러운 어린 딸 하나일 뿐이지만 그 의미는 어쩌면 누구보다 복잡하고 애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7) 선수들이 인종적 갈등과 편견을 극복하고 화합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여름 캠프 훈련 중 다 같이 식사하는 곳에서 허만 분 감독이 라스틱에게 그의 흑인 룸메이트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라고 하였다. 라스틱이 그의 특성과 행실을 말하면서 레브가 좋아하는 음악을 불렀을 때 사람 모두가 웃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여기서 서로를 알게 되고, 어느 정도 강제성을 두고 서로를 알게 하려고 한다. 서로에 대해 알게 되면 이해하고 친해지기 쉽기 때문에 허만 분 감독이 그렇게 시킨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훈련 연습 도중 잠시 쉬는 시간에 게리 버티어와 줄리어스 간의 대화에서 게리 버티어는 자신의 무능했던 리더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거기에 더해 새벽 3시 산 속을 뛰어 게티스버그 전투가 일어난 곳에서 5만명의 병사들이 죽어갔었던 전쟁 무덤들을 허만 분 감독이 보여주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법만 배운다면, 사나이다운 시합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에 게리가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보인다.

세 번째로는 저녁 늦게 경기 훈련에서는 잘못된 레이에게 그건 블로킹이 아니라면서 바로 잡게 지시하여 더 이상 인종적 편견을 가진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다. 또한 공정한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며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 또한 거리낌 없이 앉아서 나눠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레이의 행동을 고쳐주려고도 한다.

네 번째로는 모든 훈련을 마치고 전 모두 다 같이 동글게 모여 서로 간의 에너지를 주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단결심을 강하게 만들었고, 다섯 번째로는 피터와 함께 상처를 받았던 버지니아의 어느 한 가게에서 로니가 럭비 동료 몇몇 친구들과,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배스 대령님을 모시고 들어와 법무부에서 시민의 권리침해로 이 가게의 본보기를 삼아 싸울 수 있거나 합리적인 요구로 테이블에 앉게 되는 계기로 자신감을 얻게 되고 서로 간의 사이가 더욱 돈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시합 경기에서 특특히 보여주면서 나아가 교내 학생들과 주민들의 사고 인식도 바뀌게 하는 발단을 제공하여 준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사소한 변화와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내어 점차적으로 인종적 갈등과 편견을 극복해가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8) 스포츠가 갖고 있는 사회 통합적 기능의 역할은 무엇인가?

참여자 국민들이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 하며, 동호회 및 모임에서의 공동체, 공감대를 형성하여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 행복을 줄 수 있는 통합적인 분위기를 줄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스포츠를 관람하고 함께 응원하면서 국민들을 단결시키고 스포츠로 국민들을 화합시킨다. 또한 국민성이 살아나고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면, 자국민들에게 삶의 즐거움이 되고, 삶의 애환을 위로해주는 대상이 되기도 하며 자긍심과 자존감, 애국심등을 고취시키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가의 분위기가 좋아진다.

9) 본인 자신이 인종적 불평등 혹은 사회적 소외감을 경험한 사실이 있는가?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였는가?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적이 없어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사회적 소외감은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따돌림, 소위 말하는 은따와 왕따를 한 번에 경험해 본 적이 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외롭고 심적으로 괴로웠지만 나를 따돌리는 아이들 앞에서는 결코 울지도 않았고, 괴로운 기색을 내비치지도 않았다. 나에게 실질적으로 괴롭히거나 물리적으로 피해를 가하면 참지 않고 불같이 달려들었다.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들이 나를 만만히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내 자존심이었다. 나도 만만한 성격은 아니었기에 그들은 더 이상 직접적으로 나를 괴롭히지 않았고, 나는 수업시간에도 집중하고, 쉬는 시간 일부러 더욱 도도하게 굴며 책을 읽거나 문제지를 풀었다. 곳곳이 잘 버티며 무시를 하고,(물론 집에와서는 심적으로 너무 지치고 슬프고 외로워서 울었지만)적어도 학교에서는 열심히 자기 할 일하면서 생활하였다. 타락하거나 단 한 번도 나쁜 생각을 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학가지도 않으면서 곳곳이 당당하게 맞서고 싸우기도 하며 잘 극복했다는 점에 나 스스로가 참 대견스럽고 대단하단 생각도 많이 들었다. 얼마안가 내가 반응하지도 않고 순순히 당해주지도 않자 그들은 흥미를 잃고 따돌림의 대상을 바꾸었지만,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했고, 그 이후에 졸업한 후나 다른 장소에 가서도 나는 내가 따돌림 당했던 경험 덕에 소외된 아이들에게 쉽게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극복한 점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재산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타인과 더욱 잘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10) 본 영화중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장면이나, 대사, 혹은 내용은 무엇인가?

게리의 사고 후 줄리어스가 면회를 오자, 간호사는 면회는 가족만 된다고 했을 때, 게리는 말한다. “형제예요. 보면 몰라요? 우리는 얼굴이 닮았잖아요.”라고 한 장면이다.

울컥하고 코끝이 찡해져왔다. 처음에 누구보다 격하게 싸우던 게리와 줄리어스였으나, 이제는 서로를 진정 형제라고 여기는 듯해서였고, 하반신마비로 이제 풋볼선수로서는 생명이 다한 게리가 그런 말을 하니 더욱 마음에 울림이 전해왔다. 그리고 이어서 둘은 서로에게 그동안 미처 다 못 말했던 진심을 말했는데, 그 장면에서 나는 진짜 진정으로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우정을 넘어 형제 같다고 느꼈다. 그들의 얼굴이 닮은 것도 같아 보였고 말이다. 그리고 줄리어스는 “우리 같이 똑같은 동네에 옆집에 살아서.. 함께 늙고 똥땀이 아저씨가 돼서 같이 죽자. 그때쯤 되면 네가 백인이고 내가 흑인인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이렇게 화합을 이루었으나 사회는 아직 인종간의 갈등과 차별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말하는 듯해서 안타까웠고, 영화 마지막에 게리는 먼저 세상을 떠나 줄리어스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아팠다.

11) 최근 우리 주변의 스포츠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가?

영화 속 버지니아 주에선 고교 미식축구가 단연 최고의 인기 스포츠이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교 미식축구란 삶의 한 방식 그 자체이자, 경의와 숭배의 대상이며, 시즌의 플레이오프 게임이 있는 날은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그 어느 공휴일보다도 더 축제 분위기가 연출된다. 그러나 지역 교육청이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역 교육청이 모든 흑인 고등학교와 백인 고등학교를 통합하라고 지시를 내리자, 지역의 풋볼 기금은 혼란에 빠진다.

워싱턴 정부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출신 흑인인 허만 분을 T.C. 윌리엄스 고교 타이탄스 팀의 헤드 코치로 임명하는데, 그가 전임 백인 헤드코치인 빌 요스트을 자기 밑의 코치로 두려하자, 윌리엄스 고교는 일촉즉발의 분위기에 놓인다.

하지만 허만 분 감독의 강력한 통솔력과 카리스마 아래 피부색의 장벽을 뚫고 서서히 뭉치게 된다. 엄청나게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감독은 분노로 뭉친 선수들을 교화시켜서 다이내믹한 승리 팀으로 완성시킨다.

두 감독이 맡은 타이탄스가 각종 시험에서 연전연승을 기록하자 흑백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던 알렉산드리아의 냉랭한 분위기도 눈 녹듯 변하기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피부색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스포츠는 우리 삶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영향을 미친다.

스포츠는 정치·사회적 관계 면에서 겉으로는 무관한 듯 보이지만, 매우 밀접한 공생관계임을 알 수 있었는데, 우선 리멤버 타이탄 영화에서는 정치·사회적인 측면으로써 인종차별로 인해 학교 체육·스포츠에서조차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전개됨을 보여주면서 우리 스포츠가 갖고 있는 사회 통합적 기능의 대표적인 역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였고 겨우 알고 있다 해도 6.25전쟁 등 부정적 사건들로만 기억될 정도로 국제적인 인지도가 매우 낮은 나라였다. 하지만, 88 서울 올림픽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단결·결합시켰고,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올림픽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외교적으로 많은 발전과 나라 경제에도 큰 이익을 가져오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발판이 되었다. 그 이후, 지구촌의 축제라 일컬어지는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우리나라 월드컵의 4강 진출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더 놀라운 평가를 받은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성이었다. 기네스에 올라갈 정도로 서울 시청 광장에 단시간 내 많은 인원들이 모여 '붉은 악마'라는 지칭과 함께 한마음으로 응원의 열기·열정을 전파시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경기가 끝나자 승패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마음처럼 서로의 주변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깨끗한 응원문화와 정신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스포츠로 인해 국민들의 화합된 모습이 리멤버 타이탄의 주인공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으며, 좋은 결과를 내는 스포츠 덕분에 국민성이 살아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비슷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피겨여왕, 김연아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삶에 즐거움을 주며, 금지와 애국심을 더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스포츠 종목에 따른 좋은 영향들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발전되어 있었으면 하다.

3. 스포츠와 인종차별에 관한 이해.

정리해 보면 인종차별은 인종주의(개개 인종의 생물학적·생리학적 특징에 따라 계급이나 민족 사이의 불평등한 억압을 합리화하는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

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종주의는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근대에 와서 J.A.C.고비노라는 사람이 “세계문명의 발전은 백색인종이 창조한 것이며, 열등인종과의 혼혈에 따른 인종적 퇴폐로 문명은 몰락한다.” 라고 하는 주장에서 인종주의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다. 인종에 관한 문제는 꼭 피부색에 기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에 대한 문제까지도 포함하여 인종문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1) 미국 스포츠에서의 인종차별의 역사

인종차별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의 경우 오랜 인종차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과거 백인들은 스포츠에서의 유색인종의 활동을 제한해왔다. 주로 라틴계 미국인이나 흑인들, 아시아인들이 그들의 제한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백인들은 인종주의에 입각하여 스포츠에서 다른 인종과 경기를 하지 않았고 제도적 측면에서조차 백인 이외의 인종은 차별 받아왔다.

(1) 노예시대

미국에서 흑인들은 거의 2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다. 이 시기의 노예주들은 노예들이 약간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노예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 이 시기에는 도박의 성향이 강한 스포츠를 즐기려는 경향이 많았는데 노예주들은 자신의 노예를 훈련시켜 복싱이나 경마에 출전시킴으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 하였다. 이처럼 노예시대의 흑인들은 백인들의 도박이나 즐거움에 사용되는 도구로써 차별 받아왔다.

(2) 19세기와 20세기 중반

19세기에 들어와서부터 노해해방선언이 있었고, 흑인들은 운동선수로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흑인들에게 있어서 단지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되었던 것일 뿐, 여전히 차별적인 대우는 남아있었다. 노예해방선언 이후 스포츠에서의 흑인들에 대한 예를 찾아보았다.

<복싱>

- 미국 첫 헤비급 복싱 챔피언 설리번이 ‘나는 절대 흑인들과 싸우지 않을 것이다.’
- 이후 잭 뎀시 헤비급 복싱 챔피언도 흑인들과 겨루지 않겠다고 선언

<야구>

- 야구의 내셔널 리그의 백인선수들 ‘흑인선수와 같이 땀 바에 야구를 그만 두겠다.’
- 백인투수들이 흑인 타자의 머리를 겨냥하여 공을 던짐
- 1888년 메이저 리그 구단주들의 흑인선수를 기용하지 않겠다는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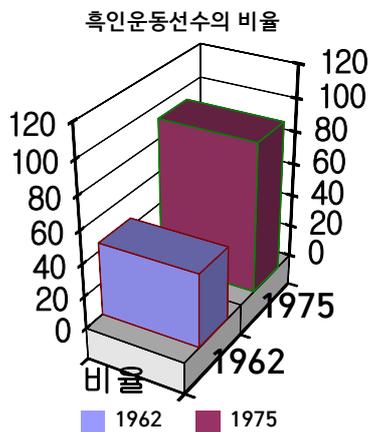
<흑인운동선수의 비율>

- 1882~1945년 중 흑인 미식축구 선수 4명, 야구, 농구 흑인 선수 없음
- 1948년 전체 농구 선수 중 약 10%정도의 팀이 흑인 선수 1명이나 약간 명 등록

이러한 차별적 대우를 받은 흑인들의 대학, 흑인들만의 경기를 만들어 40년간 지켜왔고 그 결과로써 월드시리즈, 올스타전과 같은 큰 대회를 열어 그들만의 스포츠 영웅을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 복싱도 잭 존슨이나 조 루이스와 같은 흑인 헤비급 챔피언이 나오면서 흑인들의 신체적 능력이 주목 받기 시작한다.

위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보면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는 일부 백인 상류층의 남성들에 의해 스포츠는 장악되었고 흑인들이 설자리가 없었지만 세계 2차 대전을 기점으로 점차 흑인들의 스포츠 참여기회와 능력이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스포츠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3) 20세기 후반



20세기 중반 이후 흑인들의 신체적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스포츠 상황은 크게 변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흑인선수의 비율이 증가이다. 1962년도에는 전체 대학 중 흑인선수의 비율이 45%, 1975년도에는 92%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미국이 세계2차대전 이후 1954년에 대법원에서 교육적으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부터 인데 이와 더불어 스포츠의 상업주의적 경향과 합쳐지며 흑인들의 스포츠시장의 진출이 극대화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스포츠에서는 교묘하게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단위 : %)				
연 도	인 종	포수, 유격수, 2루수	1루수, 3루수	외 야 수
1960	백인	40	27	34
	흑인	25	21	54
1966	백인	45	22	33
	흑인	18	24	58
1974	백인	44	31	25
	흑인	13	30	57
1980	백인	44	31	25
	흑인	15	18	67

<메이저 리그에서의 흑인과 백인선수의 수비위치, 한승희, 전게서, p45>

위 표를 보면 흑인선수는 주로 외야수비, 백인은 내야수비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는 백인우월사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흑인들은 스피드와 빠른 반사 능력을 위주로 하는 외야, 백인의 경우 지적능력에 관련된 빠른 판단력을 위주로 한 내야수비에 위치 시켰다. 이는 흑인들이 백인보다 신체적 능력은 앞서지만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편견을 가지고 팀 내의 의사결정권으로부터 멀리하려는 의도로 분석한다.

또 한 가지 흑인들은 은퇴 이후에 스포츠 팀 내 감독이나 코치와 같은 관리직에서 일하는 수, 혹은 스포츠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현저하게 작았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

면 백인의 차별적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NFL (National Football League)**

- 1989년 흑인 헤드코치는 단 한명, 총감독 없음

*** MLB (Major League Baseball)**

- 1980년대 까지 흑인 코치 9%, 총 감독 없음

*** NBA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 미식축구나 야구에 비해 많은 흑인 헤드코치 수 보유, 하지만 흑인선수가 80%인 점을 감안하면 미비한 수준

표 3. 미국 스포츠 팀들의 선수, 코치, 감독, 구단주들의 비율 현황

경기연맹	선수(%)	보조코치(%)	감독(%)	최고운영책임자(%) (CCO) ^a	최초의소유자 (%)
NFL					
흑인	65	26	10	13	0
라틴인	<1	1	0	0	0
그외 ^b	1	<1	0	0	0
백인	33	73	90	87	100
NBA					
흑인	77	34	17	28	0
라틴인	<1	0	0	0	0
그외	0	0	0	0	0
백인	23	66	83	72	100
MLB					
흑인	15	17	10	0	0
라틴인	25	8	3	0	0
그외	1	<1	0	0	3
백인	59	75	87	100	97
NHL					
흑인	1	1	0	0	0
라틴인	0	0	0	0	0
그외	1	0	0	0	4
백인	98	99	100	100	96
MLS					
흑인	16	13	0	0	NA
라틴인	21	29	33	8	NA
그외	1	0	0	0	NA
백인	62	58	67	92	NA

자료 : 랩치코 와 매튜스, 2000. 제이콥슬리, 사회내의 스포츠, 273.

^a이 사람들은 팀의 일정에 책임을 지고 있다.

^b선수들을 제외하고 각 포지션의 "그외"들은 아시아인/아시안계 미국인들이다.

NA: MLS는 완전 독립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실질적인 운영자를 보다는 창시자/주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거의 대부분은 백인들이다.¹⁰⁷⁾

<랩치코, 매튜스, 2000. 제이콥슬리, 사회내의 스포츠, 273>

위자료를 보면 백인들에 비해 흑인들의 코치나 감독, 관리직에 종사자 수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는 백인들의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태도와 연관이 있는데 흑인들은 이성적이지 못하고 다혈질적이며, 또 지성적이지 못하고 리더로서의 이성적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백인들의 인종차별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의 뛰어난 신체적 능력을 인정받아 NBA, MLB, NFL등과 같은 미국 정통 스포츠에서 흑인선수들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져 갔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은 존재 하고 있었다.

3. 인종차별의 형태와 사례

<F1 레이싱 경기에서 인종차별 사례>

사례1.

영국의 스타성 드라이버 루이스 해밀튼이 F1무대에 데뷔하고 같은 팀 이었던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와 레이스를 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였는데 이것이 스페인과 영국 팬들의 감정대립구도로 커지면서 인종비하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 해 시즌이 끝나고 알론소가 팀을 떠나자 스페인 사람들은 해밀튼에게 온갖 욕설과 "puto negro" (f**king black), "negro de mierda" (black shit)와 같은 인종 비하 발언과 함께 인종차별적 대우를 하였다. 이러한 스페인 팬들의 인종차별적인 태도에 국제 모터스포츠를 관장하는 국제자동차연맹(FIA)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면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냈다. 공식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이 또 되풀이되면 최악의 경우에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그랑프리 경기 개최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강경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 최근 들어 F1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대두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아시아계(일본, 말레이시아, 인도) 드라이버들이 활동을 해왔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루이스 해밀튼(영국)이라는 흑인 드라이버가 F1에 데뷔하면서 인종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아시아계 드라이버들이 그다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종차별적 대우가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F1 무대에서 흑인 드라이버가 없었다는 것도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선수간의 경쟁이 양국가의 자존심 싸움으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 인종에 대한 문제로 까지 이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축구에서의 인종차별 사례>

축구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능 스포츠라고 할 만큼 여러 나라의 국가가 즐기는 스포츠 중 하나이다. 하지만 축구 그라운드에서도 인종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다음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2.

'악연' 앙리-아라고네스 감독 맞대결

서울=연합뉴스 2006.06.26

2004년 인종 차별 발언 논란의 당사자였던 루이스 아라고네스 스페인 감독과 프랑스의 스트라이커 티에리 앙리가 8강으로 가는 길목에서 맞붙게 됐다.

아라고네스 감독은 2004년 10월 스페인대표팀 훈련 도중 호세 안토니오 레예스에게 “네가 그 검둥이(black shit)보다 낫다”고 말하는 장면이 TV에 잡혀 곤욕을 치렀었다.

아라고네스 감독은 이 발언에 대해 “레예스에게 ‘같은 아스날 소속의 앙리보다 낫다’고 격려하려는 의도였다”고 말했으나 부적절한 언어 선택으로 거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영국 일간 '미러'지는 26일(한국시간) 인터넷판 보도를 통해 “프랑스의 수비수 미카엘 실베스트르가 '아라고네스는 축구계에서 추방됐어야 할 인물'이라며 '아라고네스가 앙리에게 검둥이라고 말했을 때 모든 프랑스 선수들은 역겨움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아라고네스는 당시 겨우 2천파운드의 벌금밖에 내지 않았었고 공개적인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며 “실베스트르는 '그 정도로 적은 벌금밖에 내지 않은 것은 믿기지 않는 일이고 그가 계속 대표팀 감독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제는 우리가 경기장에서 아라고네스 감독에게 복수를 해 줄 때”라고 버른 실베스트르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와 맞서 수비에 치중하는 팀들과만 경기를 했다. 따라서 우리를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오는 팀과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앙리는 스페인과 16강전을 앞두고 아라고네스 감독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앙리라고 하면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름을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축구스타이다. 하지만 이러한 축구스타도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고 이러한 사건에 대한 스페인 측의 대처 또한 어영부영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곧 바로 감독의 사퇴와 함께 많은 비난을 받았겠지만 스페인 축구연맹은 그저 경고와 약간의 벌금으로 일을 마무리 하였다. 이는 흑인 스포츠 선수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례3.

2001년부터 3년 동안 벨기에리그의 안더레흐트에서 선수생활을 한 설기현(28, 풀럼)은 더비 라이벌인 부르헤와 경기에서 상대팀 서포터에게 심한 인종차별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냈다.

당시 경기장에서 설기현을 응원했던 홍우림(27) 씨는 “부르헤 팬들이 설기현이 볼을 잡자 'Seol is a fucking idiot(설은 끔찍한 멍청이)'라는 노래를 불렀다”며 “만여 명이 한꺼번에 한 사람을 공격하는 데 정말 화가 났다”고 말했다.

2005년 스페인 라싱 산탄데르에서 뽀 이호진(24)은 '치노치노'하며 자신을 놀려대는 일부 서포터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치노는 '중국 아이'라는 말이지만 일부 유럽 서포터들 사이에서는 아시아계 선수를 비아냥하는 말로 쓴다.

- 우리나라 선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유럽으로 진출하고 있는 축구선수들도 이적 초기에 인종차별적 모욕을 겪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위 사례들 이외에도 박지성의 '개고기 송'과 같은 심한 인종차별이 행해지고 있다.

<야구에서의 인종차별>

사례4.

LA 키드, '첸호'의 추억 2008.05.21 프레시안

원래 다저스는 가장 먼저 인종의 벽을 허물어 버린 팀이다. 1949년 (브루클린 다저스 시절) 메이저리그 최초로 흑인인 재키 로빈슨을 출전시켰고 80년대엔 라틴열풍을 몰고 온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95년엔 최초의 동양인인 일본인 노모 히데오를 팀의 간판으로 키웠다. 따라서 '인종의 벽을 허문 팀'이라는 찬사와 '인종문제를 마케팅 상술로 활용한다'는 비난을 동시에 받기도 했다. 그런데 최초의 한국인 메이저리거였던 박찬호가 적응하는 데는 짧은 시간은 필요했다.

1994년 미국에 건너온 애송이(?) 박찬호는 메이저리그에 합류하면서 동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었다. 다저스엔 신참 투수가 메이저리그 첫 승을 올리면 동료들이 라커룸에 먼저 가 옷을 찢어 놓는 일종의 통과 의례 신고식이 있었는데 96년 메이저리그 첫 승을 거둔 날, 박찬호는 찢어진 자신의 옷을 발견한 뒤 참지 못하고 라커룸에서 난동(?)을 부린 덕에 동료들의 눈 밖에 난 것이다. 갓 스물 넘어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마이너리그에서 무시무시한 고독감과 싸우고 인종차별까지 경험하면서 '한 번 알보이면 평생 무시당한다'는 생존본능을 습득한 그것기에 한편 이해할 만한 행동이었지만 그 후유증은 꽤 오래갔다.

특히 그와 배터리를 이루던 프랜차이즈 스타 마이크 피아자는 가끔씩 그를 무시하는 듯했다. 다른 선수들도 투수로서의 담력과 리더십에 있어서 박찬호의 능력을 의심했다. 팀 분위기도 최악이었다. 무능한 감독에 선수들과의 말싸움을 사양치 않는 단장, 개성 강하고 서로 잘났다는 선수들, 투수들을 험담하고 다니는 포수. 분란이 심했던 당시 다저스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다국적군'으로 구성된 선발투수진이었다.

- 코리안 특급 박찬호의 경우, 스포츠를 통해 세계무대로 진출한 1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박찬호 역시 메이저리그 정착 초기에 백인들로부터 인종차별을 받아왔다. 유니폼을 찢어놓는다거나 리더십이나 담력을 의심하는 등 특정 인종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박찬호를 대우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인종차별>

사례5.

두 개의 민족, 두 개의 이름 , 2006. 04. 06 프레시안

(중략) 조국을 위해 피땀을 흘렸고 결국 금메달까지 따왔건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너희 나라로 가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재일동포지만 일본에서 일본선수와 시합을 해도 경기장 안에서는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그의 절규어린 호소는 계급, 인종, 국적, 성별을 초월하며 정당함을 고수해야만 하는 스포츠에 '야누스의 두 얼굴'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결국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귀화했고,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때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아키야마 요시히로'의 이름으로 돌아온다. 예선에서 결승까지 무난하게 올라온 아키야마는 결승전에서 한국의 안동진(경남도청)과 붙었고, 심판판정까지 간다. 그 순간 그는 '귀화를 결심하게 했던 재일동포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불현듯 생각났다'고 한다. '설마...', '괜찮을 거야, 정말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심판들이 모두 외국인이니까'라며 1시간 같았던 발표 전 10초의 시간 동안 그는 그렇게 자신을 위안했다. 결국 2-1. 아키야마의 승리로 결정 났고, 그는 순간 관중석에 있는 자신의 가족을 향해 두 손을 번쩍 치켜들며 활짝 웃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관중들은 박수가 아닌 야유로 답한다. 조국의 배신자라고. 한 스포츠 신문의 헤드라인처럼 '조국을 메쳤다'고...

- 추성훈이 K1 무대에 데뷔하기 전 유도선수 생활을 할 때 받았던 인종차별에 대한 기사이다. 지금은 언론에 의해 많이 알려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인종차별이 행해지고 있는 사례를 보여준다.

"지난 해 전국체전에서 용인대 선수와 경기를 했는데 누가 봐도 성훈이가 이긴 경기였는데 판정에서 졌어요. 심판에게 항의했더니 심판 한 명이 성훈이에게 '네가 이해해라.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들을 때는 가슴이 폭발할 것 같았는데, 성훈이 마음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추성훈 선수의 어머니-

'한판으로 이기지 못하면 판정에서는 진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일본인으로 귀화하겠다는 생각을 60% 정도 굳힌 상태입니다." -추성훈-

추성훈 선수와 그의 어머니와 인터뷰 내용이다. 당시 국내 유도계의 인종차별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순수한 한국인이 아니라 제일교포라는 이유로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은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순혈통주의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인종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4.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

위 자료를 토대로 인종차별의 형태와 사례를 알아보았다. 인종차별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무수히 많은 흑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도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아왔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인종차별철폐국제조약이 성립되면서 각 나라별로 인종차별에 대한 정책에 대한 비합법화가 이루어지면서 인종차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인종차별철폐국제조약 [人種差別撤廢國際條約,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5년 12월 제20차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69년 1월 4일 발효된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조약.

일시 : 1969년 1월 4일

목적 : 인종차별에 대한 비난, 차별정책의 비합법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특히 흑인선수의 신체적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됨에 따라 스포츠 팀에서 흑인 선수들의 비중이 더욱더 커지고 흑인선수들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인 인종차별에 대한 의식수준도 점점 높아져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적 조약이나 국가간의 노력 이외에도 각 스포츠 연맹에서 인종차별을 행정적으로 규제를 하기도 하는 특히 인종차별이 심한 유럽축구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국제 축구연맹 FIFA에서는 2006년 독일월드컵을 앞두고 강력한 반인종차별(anti-racism)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관중석에서 인종차별적 응원이 나오면 해당 국가나 팀의 승점을 감점시키는 것이었다. 처음 적발될 시 3점, 두 번째 6점, 3번째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받고 더불어 자국리그에도 정착 할 수 있도록 권고 했다.

또 2006년 3월에도 국제 경기에서 이러한 내용이 적발될 시 해당 대표팀이나 클럽팀이 2년 동안 국제대회에 참석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연맹이나 협회의 정책 이외에도 인종차별이 행해지는 스포츠 종목에 관해서 올림픽 정식종목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조취를 취하고 있는 것을 신문 기사를 토대로 알 수 있었다.

골프의 올림픽 재입성 2016년엔 가능할까 2008-06-04 주간한국

최근 심심치 않게 골프의 올림픽 종목 채택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그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골프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등장한 90년대 중반 이후 인기 종목으로 부상하면서 역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타이거 우즈는 축구, 야구, 농구를 포함한 전 종목을 통틀어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로 공인받고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골프는 인류 최대, 최고의 스포츠 축제라 할 수 있는 올림픽에 포함돼 있지 않다. 골프는 1896년 근대올림픽이 시작된 직후인 1900년 파리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선을 뵈으나 제3회 대회인 1904년 세인트루이스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올림픽 무대에서 사라졌다. 인종 차별 등이 퇴출 이유였다. (중략)

이처럼 스포츠에서의 인종차별은 세계적인 조약이나 각 스포츠 연맹 등에 의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인종차별 퇴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진행 되고 있다.

5. 스포츠에서의 인종차별의 전망과 미래

스포츠에서 인종차별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그에 따른 각 나라별, 연맹이나 협회 등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내놓고 있었다.

인종 차별은 그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유색인종, 특히 흑인들이 신체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각 스포츠 팀의 흑인선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인종차별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또 스포츠 이벤트나 각종 국제 대회에서 흑인 스포츠 선수들이 뛰어난 실력을 보이기 시작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색인종 선수들의 성공적인 스포츠 무대의 진출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부문이나 교육에 관한 기회를 넓혀 줌으로써 사회진출의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상승과 각 나라나 협회의 제도적 방침이 강력해 짐에 따라 스포츠에서 인종차별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따라서 유색인종에 대한 의식도 크게 성숙해 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NBA, 피부색이 승부에 영향을 미친다?

美 대학 보고서, 백인 심판이 흑인 선수에게 분 반칙 압도적

플레이오프가 한창 진행 중인 미국프로농구(NBA)에 '인종차별'이라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 들렸다.

뉴욕타임스는 2일(현지시간) 미국프로농구(NBA) 판정을 연구해 발표한 한 대학 연구보고서를 인용, 백인 심판이 흑인 선수에게 내린 반칙 비율이 백인 선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저스틴 울퍼스 워턴 스쿨 조교와 조셉 프라이스를 비롯한 코넬 대학원생들이 연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흑인 심판이 부른 파울 역시 흑인보다는 백인 선수에게 더 많았지만 백인 심판처럼 두드러지진 않았다.

울퍼스와 프라이스는 "심판진이 어떤 피부색을 가진 인종으로 결성되느냐에 따라 승부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조이뉴스24, 2007)

메이저리그 전 구장서 '재키 로빈슨 데이' 행사

미국프로야구 사상 최초의 흑인선수 재키 로빈슨(1972년 53살로 사망)을 기리는 '재키 로빈슨 데이' 행사가 15일(현지시각) 메이저리그 전 구장에서 펼쳐졌다. 로빈슨은 1947년 4월15일 브룩클린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보스턴 브레이브스와 경기에 출전, 메이저리그 최초로 인종차별의 벽을 허물었다. 메이저리그는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경기 출전 50돌이 되던 1997년 4월15일 버드 셀릭 커미셔너가 30개 전 구단에 로빈슨 등번호 '42'를 영구결번에 포함시켰다.

메이저리그는 2004년부터 매년 4월15일을 '재키 로빈슨 데이'로 지정해 스포츠에서 인종차별을 이겨낸 로빈슨을 기념하고 있다. (한겨레, 2006)

참고문헌

<http://ref.daum.net/item/9418079> - 해피캠퍼스 자료

<http://www.reportworld.co.kr/static/546/F545767.html> - 레포트월드 자료

